

숫자로 보는  
충북 50년사



# 안전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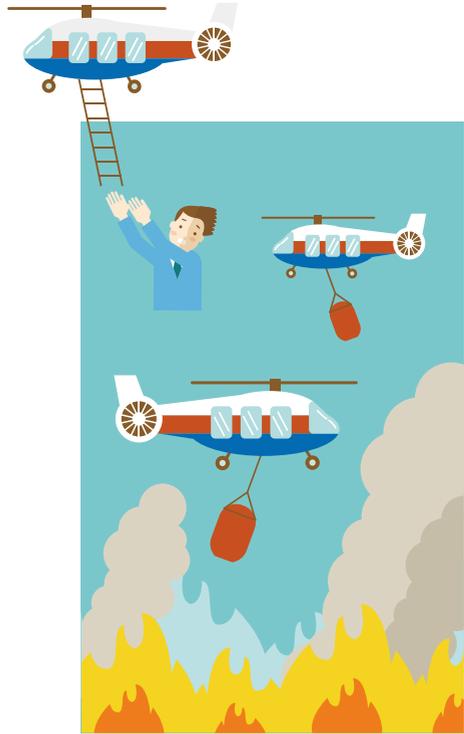


- 142 화재발생**  
충북화재발생, 실화 비중 88.5%로 가장 높아
- 144 교통사고**  
도내 교통사고 1990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
- 146 풍수해 발생**  
내륙도로 풍수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충북!
- 148 범죄 발생 및 검거**  
범죄발생은 12배 이상 검거는 11배 증가
- 150 5대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도내 범죄 폭력, 절도가 대부분

## 화재발생

2015년 기준  
화재발생 **1,373**건  
방화 **2.5**%  
실화 **88.5**%  
기타 **9.0**%

충북화재발생,  
실화 비중 88.5%로  
가장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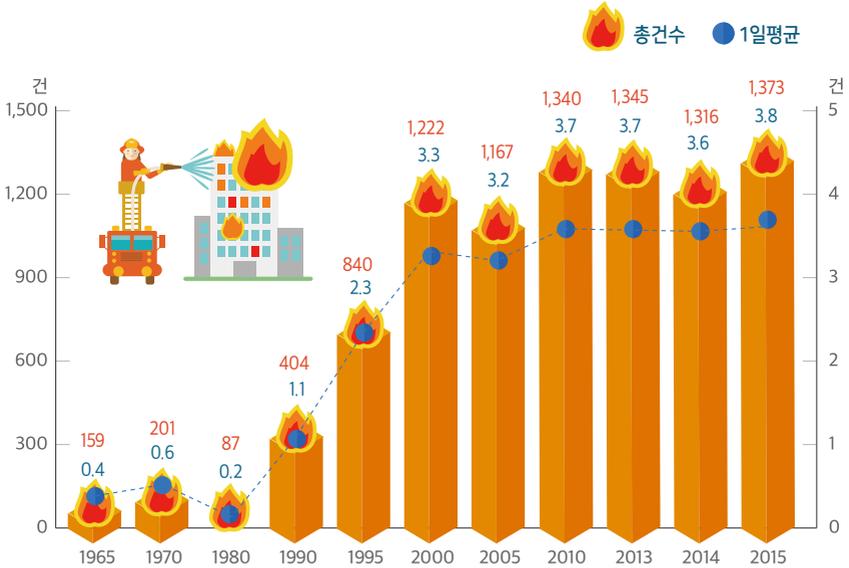
현재 충북의 화재발생은 1,373건(2015년 기준)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방화(2.5%), 실화(88.5%), 기타(9.0%)로 실화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내 화재발생은 지속적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1965년 159건에서, 1970년(201), 1980년(87), 1990년(404), 2000년(1,222), 2010년(1,340), 2015년(1,373)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따라 1일 평균 화재발생 비율도 1965년(0.4), 1970년(0.6), 1980년(0.2), 1990년(1.1), 2000년(3.3), 2010년(3.7), 2015년(3.8)로 2000년대까지 급증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2010년 이후 더 이상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으며 일정 수준 정체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충북은 화재 사망자는 분석결과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화재발생의 주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철저한 준비는 더 큰 재산사고를 예방 할 수 있어요



단위 : 건

구분	화재 발생				1일평균
	총건수	방화	실화	기타	
1965	159	12	108	39	0.4
1970	201	7	146	48	0.6
1980	87	3	78	6	0.2
1990	404	24	230	150	1.1
1995	840	28	596	216	2.3
2000	1,222	62	813	347	3.3
2005	1,167	74	341	752	3.2
2010	1,340	78	1,157	105	3.7
2013	1,345	49	1,191	105	3.7
2014	1,316	52	1,145	119	3.6
<b>2015</b>	<b>1,373</b>	<b>34</b>	<b>1,215</b>	<b>124</b>	<b>3.8</b>

자료 : 대응예방과, 국민안전처(화재현황통계), 총복통계연보

# 교통사고

2015년 기준  
교통사고 **9,335**건  
사망자 **238**명  
여성 비율 **24.4%**



## 도내 교통사고 1990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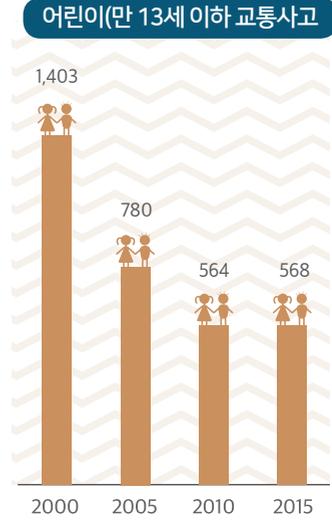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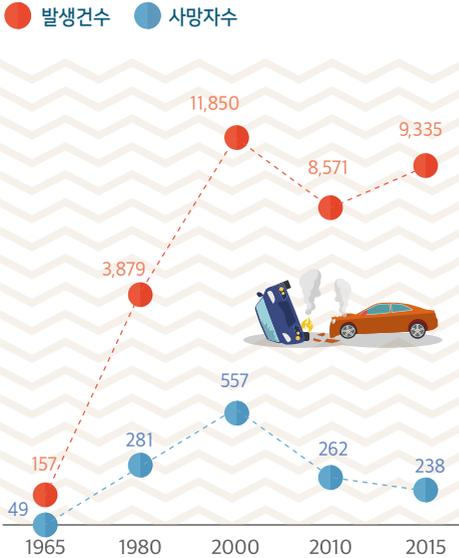
2015년 기준으로 총복의 교통사고는 9,335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사망자 238명(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 15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24.4%로 나타나고 있다. 부상자 14,927명이고 여성의 비율은 37.6%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으로 어린이(만 13세 이하) 교통사고는 568건으로 사망자 3명, 부상자 734명으로 조사되었다.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사고는 1980년 이후 급증하여 1995년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10년 이후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사망자 수 역시 1990년 66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가 완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부상자도 거의 동일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집계가 시작된 2000년(1,403건)에서 2014년 현재 568건으로 급감하였으며, 사망자 역시 32명에서 3명으로 부상자도 1,719명에서 734명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교통사고 감소추세가 뚜렷한 것은 도민들의 성숙해진 교통의식과 함께 지속적 단속과 안전지도가 병행된 결과로 판단된다.

조금만 양보했더라면...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양보의 미덕으로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었어요



단위 : 건, 명

구분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계	인구 10만명당	계	인구 10만명당
1960	157	49	4	247	18
1970	724	133	9	1,168	80
1980	3,879	281	20	4,269	300
1990	9,644	661	49	12,986	968
1995	11,374	618	45	15,844	1,155
2000	11,850	557	37	18,416	1,224
2005	7,455	285	19	12,289	826
2010	8,571	262	18	14,032	949
2011	8,696	265	18	14,178	960
2012	8,636	280	18	14,410	933
2013	8,501	286	18	14,222	910
2014	8,937	253	16	14,759	917
2015	9,335	238	15	14,927	-

구분	어린이(만 13세 이하) 교통사고		
	건수	사망	부상
2000	1,403	32	1,719
2005	780	13	995
2010	564	5	746
2011	522	3	675
2012	571	4	747
2013	554	4	711
2014	568	3	734

자료 :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통계」

※ 1960년 : 충북통계연보

## 풍수해 발생

2015년 기준  
사망 및 실종 **0**명  
이재민 **0**명  
피해액 **3,731**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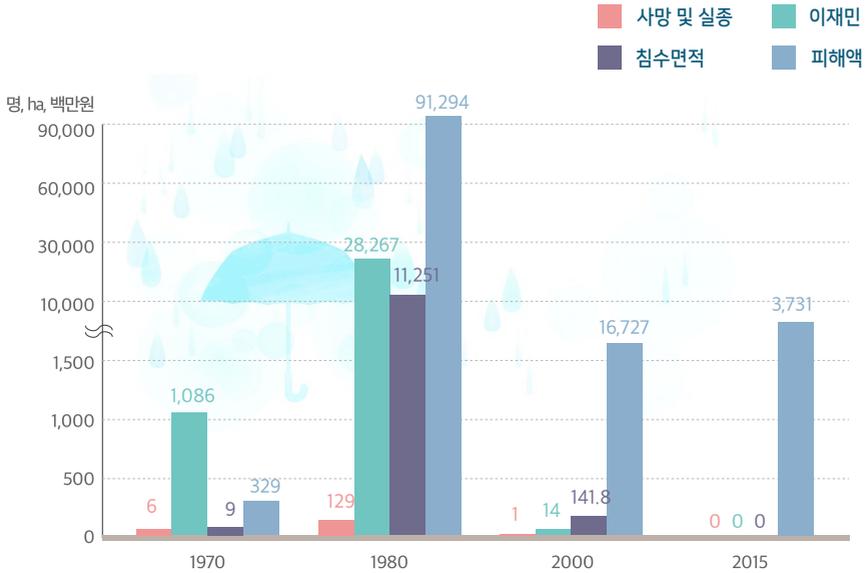
## 내륙도로 풍수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충북!

충북은 내륙도라서 바다와 인접한 타도와 달리 풍수해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2015년 현재 사망 및 실종(0명), 이재민(0명), 침수면적(0Ha), 피해액 3,731백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풍수해 현황은 시계열적으로 일정한 추세를 나타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1970년과 비교해볼 경우 사망 및 실종이 1980년에는 126명 있었으며, 2009년 이후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0년대 이후 이재민의 비중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침수면적도 이와 비례해서 나타나고 있다.

충북은 비교적 풍수해 발생에서 안전한 지역이지만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현상이 잦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한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충북은 집중호우나 태풍과 같은 풍수해 발생에서  
안전한 지역이에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  
조심은 **안전**을 위해 준비하세요



단위 : 명, ha, 백만원

구분	사망 및 실종	이재민	침수면적	피해액
1970	6	1,086	9	329
1980	126	28,267	11,251	91,294
1990	15	3,783	2,995.5	84
1995	4	1,287	7,719	73,532
2000	1	14	141.8	16,727
2005	3	17	185	9,009
2006	2	1,011	795	95,058
2007	0	118	54	5,814
2008	1	82	73	6,312
2009	0	5	93	20,850
2010	0	7	79.33	20,817
2011	0	22	1.65	-
2012	0	18	9.95	17,203
2013	0	3	0.06	1,950
2014	0	0	0	4.5
<b>2015</b>	<b>0</b>	<b>0</b>	<b>0</b>	<b>3,731</b>

자료 : 치수방재과, 충북통계연보

# 범죄 발생 및 검거

2015년 기준

범죄발생 **54,143**건

검거 **44,949**건



범죄발생은  
12배 이상  
검거는 11배 증가

충북의 2015년 도내 범죄 발생 건수는 54,143건이고, 검거는 44,949건이다. 한편, 전체 범죄 인원은 56,786명으로 조사되었다.

1960년과 비교해볼 경우 범죄발생은 1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검거는 11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검거 건수는 1960년 4,140건에서 1980년 17,850건으로 증가됐고, 2000년 50,478건으로 배 이상 급증하였다. 이후 2015년에는 44,949건으로 약간씩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범피양상이 과거와 달리 묻지마 범죄나 소시오패스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최근 경제적 불황으로 인한 범죄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안전한 충북, 살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  
드내 치안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단위 : 건

구분	전체 범죄	
	발생	검거
1960	4,271	4,140
1970	20,333	18,135
1980	21,862	17,850
1990	35,385	31,622
1995	41,978	37,052
2000	59,485	50,478
2005	56,546	48,673
2010	54,358	45,592
2011	48,235	36,235
2012	50,477	38,078
2013	52,060	40,785
2014	50,856	40,986
<b>2015</b>	<b>54,143</b>	<b>44,949</b>

자료 : (2010~2015)충북지방경찰청 「충북경찰통계」  
※ 2005년 이전 : 충북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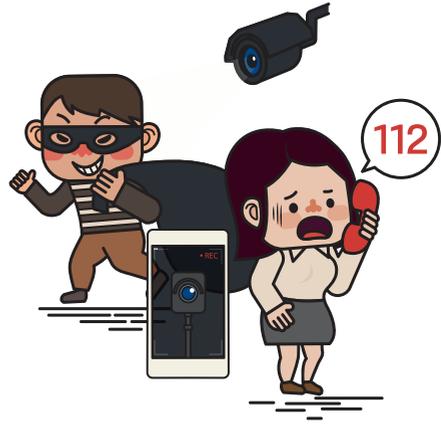
## 5대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2015년 기준

5대 범죄 발생 **17,605**건

검거 **13,172**건

검거율 **74.8%**



## 도내 범죄 폭력, 절도가 대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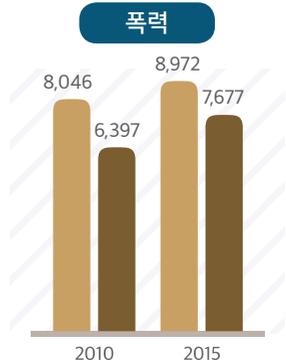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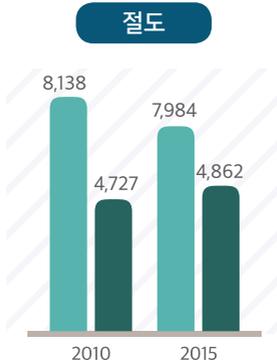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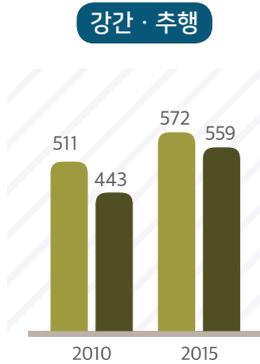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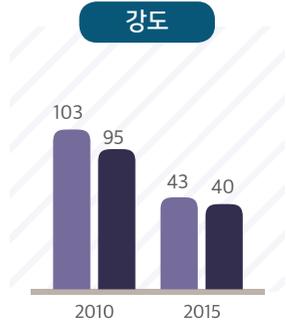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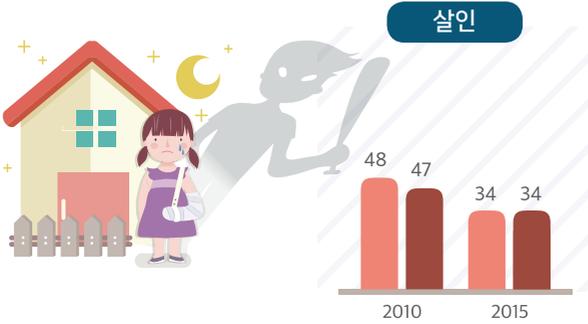
2015년 기준으로 통상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및 추행, 절도, 폭력)의 도내 발생건수는 17,605건이고 검거가 13,172건으로 74.8%의 검거율을 기록하고 있다.

5대 범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도내 범죄는 2011년(19,732건)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검거율은 2012년 10,755건 이후 지속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범죄 발생 비중을 살펴보면 폭력(51.0%), 절도(45.4%), 강간 및 추행(3.2%), 강도(0.2%), 살인(0.2%)이며, 분야별 검거율은 살인(100.0%), 강도(93.0%), 강간 및 추행(97.7%), 절도(60.9%), 폭력(85.6%)로 집계되었다.

최근 범죄 양상이 흉포화, 잔인화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할때 CCTV 등 방범 인프라 확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화 · 지능화 되고 있는 범죄,  
CCTV 등 방범 인프라 확충이 되어야 해요



단위 : 건, 명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010	16,846	11,709	48	47	103	95	511	443	8,138	4,727	8,046	6,397
2011	19,732	11,014	46	45	108	92	507	412	10,365	3,880	8,706	6,585
2012	18,239	10,755	39	39	83	71	501	433	9,158	3,559	8,458	6,653
2013	18,125	11,908	34	36	54	51	584	520	9,087	4,684	8,366	6,617
2014	17,271	12,060	33	34	55	57	526	504	8,260	4,503	8,432	6,962
<b>2015</b>	<b>17,605</b>	<b>13,172</b>	<b>34</b>	<b>34</b>	<b>43</b>	<b>40</b>	<b>572</b>	<b>559</b>	<b>7,984</b>	<b>4,862</b>	<b>8,972</b>	<b>7,677</b>

자료 : (2010~2015)충북지방경찰청 「충북경찰통계」  
※ 2005년 이전 : 충북통계연보